

궁극의 아름다움

January, 2019 | 김지선 에디터

EXHIBITION

WOVEN WONDERS

정성스럽고 우아하게 직조된 예술품이 갤러리에서 걸어나와 집안으로 들어온다.

예술이 삶에 어떤 의미인지 물었을 때, 이슬기 작가는 이를 도자기에 비유했다. "예술은 인생을 담은 하나의 그릇과도 같아요." 서울에서 태어나 파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 이슬기는 또렷한 색깔과 우아한 형태를 통해 전통적인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는다. 지금 갤러리 현대에서 열리고 있는 이슬기의 개인전 <다마스스(DAMASESE)>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마스스는 이슬기가 만들어낸 주문으로, 장인의 바람을 담았다. 공예품을 인류학적 오브제로 인식하는 이슬기는 이번 전시에서 신화, 설화, 속담 등이 가진 상상력과 언어 체계가 시각적으로 응축되어 있는 작품들을 소개한다. 통영 지역의 장인들이 짠 직물은 추상적이고 시각적인 형태로 한국의 속담들을 묘사한다. 그녀의 작품 '오리발을 내밀다'의 주황색 마름모는 노란색 선으로 갈라지고,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둘러싸여 있다. 고립된 아름다움을 담은 이 작품은, 그 뒤의 숨은 의미를 읽어낼 때 더욱 매혹적으로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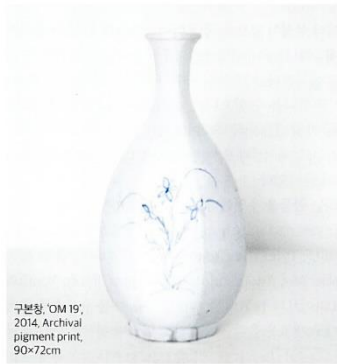
"색에는 영적인 것이 담겨있다"고 믿는 이 작가에게 염료는 특히 중요하다. 선명한 팔레트는 그녀가 예술과 패션의 세계를 넘나들 수 있도록 해준다. 2017년 에르메스는 이슬기 작가에게 한정판 에디션 캐시미어 린트를 의뢰하였으며, 내년 봄에는 버질 아블로, 루이 비통 남성복의 디렉터 등의 디자이너들의 카펫과 함께 이슬기의 카펫이 이케아를 장식할 예정이다. 이슬기는 갤러리에서 꺼내 집안으로 들일 수 있는 예술적인 러그를 만들어왔다.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매우 기대돼요. 예술이 우리의 인생을 더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케아의 아트 러그는 2019년 봄부터 구매할 수 있다.

번역/문예준 글/ Helena Lee <하퍼스 바자> 미국판 에디터



이슬기 '일월러진 풀', 2018, 진주염주, 통영 두부장인의 협업, 195x155x1cm
Copyright (Seul) Lee and Adagp, Courtesy Gallery Hyundai, Seoul

바탕: 문예준 글/ Helena Lee <하퍼스 바자> 미국판 에디터



구분창 'OM 19', 2014, Archival pigment print, 90x72cm



구분창 'OM 14', 2014, Archival pigment print, 90x72cm

궁극의 아름다움

구분창의 백자를 조용히 응시하는 시간.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 구분창의 개인전 <Koo Bohnchang>이 개최된다. 백자, 카메라, 작가의 상위일체를 보여주며 구분창의 대표작이 된 백자 연작 10여 점을 비롯해 새롭게 선보이는 청화백자 연작 10여 점, 대형 제기 연작 등 총 30여 점의 작품을 이번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구분창의 백자 연작은 백자를 읽고, 보고, 경험하고, 기억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켰다. 우리는 그의 작품을 통해 박물관의 조명 밑이 아닌 자연광에 놓인 백자의 아름다움을 조용하게 응시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이번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청화백자 연작은 당대의 기호, 욕망, 가치 등의 회두를 서정적으로 풀어낸다. 구분창 작가의 말이다. "백자의 앞, 뒤태를 살피고 도공의 손질을 감지하고 화공의 붓질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것을 만든 이들과 시공을 초월하여 조우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시대 우리 민족의 상황과 삶의 태도를 읽게 되는 것이다." 에디터/ 김지선